

임실군, 전북도 보건의료분야 3관왕

영양플러스·금연·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3개 부문 기관 표창

임실군이 2020년도 전라북도 보건 의료분야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 보건의료분야는 전라북도 보건 의료분야 평가에서 영양플러스사업과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전라북도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영양,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전개로 군민의 건강행태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해 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전환,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영양상담 및 보충식품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군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높아지는 태아와 영유아의 미

생건강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공급하고 있으며, 영양사의 질 높은 영양교육과 상담을 최소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연관리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및 계도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금연사업을 전개했다.

금연클리닉 방문자들에게 기초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6개월간 상담사와의 1:1상담과 실천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니코틴 패치, 각종 금연보조제를 지원하여 금연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을 희망하는 10인 이

상 단체, 학교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에 흡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검사 및 교육을 실시했다.

내혈압과 내혈당·내지질 알기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적극적인 행정을 인정 받았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성과를 낸 의료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다양한 보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형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검사와 교육과 계도, 홍보 등을 펼쳐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가 9일 경기도 수원 농민회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농업대상'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승 소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상'

황숙주 순창군수가 9일 경기도 수원 농민회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농업대상'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주)농업인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해부터 수상하고 있다.

농업인분야와 농산업분야, 농촌진흥 분야, 지방농정분야 등 총 5개 부문 수상이 이뤄진 가운데 황숙주 군수는 지방농정분야에서 최우수상으로 수상하면서 순창군의 이름을 빛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해당 시군 센터 소장 및 시군 농촌지도자회 연합회장 대리 수상 요청에 따라 순창군도 황숙주 군수를 대신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승 소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황숙주 군수는 장수고을과 장류산업 특구 이미지를 기반으로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순창의 문화와 역사, 관광과 치유(건강)라는 콘셉트를 더해 치유농업을 도입,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도·농 교류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기계 무료대여와 마을 순회수리,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캠프플랫폼 구축과 대도시로 찾아가는 귀농 사업 전개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그린뉴딜, FTA 등 국제농업환경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육성, 종자산업육성, 미생물 활용 및 실용화로 농업패러다임을 전환,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친환경농자재 사업 우수기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사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남원시가 제출한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평기 위원장과 김정현 부위원장 및 경제산업위원회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심사할 2021년도 남원시 예산안 규모는 8,88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96%나 증액, 일반회계는 8,193억원으로 71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1억원으로 161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오는 17일까지 심사·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전평기 위원장은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드러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 '최우수'

평가포상금제·특별 징수기간 설정 등으로 91% 징수율 기록

임실군이 전라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1월말까지의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실적, 징수 노력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의 기준이 반영됐다.

임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으로 읍면 징수 평가포상금제, 특별 징수기간 설정 등을 통해 올해(11월말 기준) 91%의 징수율을 올렸다.

특히 읍면에는 징수불능자에 대해 읍면과 합동조사를 통해 700여건에 2,000여만원의 결손처분을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연 2회 부과되며 환경오염방

지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군은 내내에도 부담금 징수를 향상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전화촉박을 실시하고 연납제도와 자동이체, 홈페이지,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들의 수준 높은 자발적 납부 의식에 따른 결과로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환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구강보건센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구강보건센터가 올 연말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 구강검진과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구강검진은 학교 요청이 있으면 일정을 조율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며,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발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또한 철저히 준수해 시행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9일 현재까지 관내 8개교 58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교육 실시와 구강관리용품(치약·칫솔세트)을 지급했으며,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시기인 초등학생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바니쉬 도포를 진행했다. 또 구강검진 후 1~2학년 58명을 대상으로 충치가 없는 어금니에 홈을 메워 충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치아 홈메우기도 함께 했다.

이 사업으로 치과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의료취약지 학생이 수혜를 받으면서 학부모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해달라는 요청 또한 높았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들의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 및 맹출되는 혼란 치열기로 이 시기에 충치가 발생하기 쉽고 유치에 발생한 문제점이 영구치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면서 "이로 인해 잇솔질 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